

檢 “최 빌딩 관리인, 차사저·靑 수리”

관리인 “미승빌딩 운영하는 안승기업서 월급받아”...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 입증 중요 증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소유의 미승빌딩 관리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씨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여러 작업을 해줬다는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은 수백억원 상당의 빌딩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중범(58·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와) 대통령의 친밀관계를 입증할 중요 증거자료”라며 미승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문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최씨가 2009년 미승빌딩 운영을 위해 설립한 ‘안승기업’이라는 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다른 업자들이 불가능하다는 전기 공사를 해주면서 최씨의 전 남편인 정운회(62)씨가 좋게 봤고, 이를 계기로 최씨 측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할 당시 정씨가 삼성동(박 대통령의) 사저에 가서 집수리를 해주라고 해서 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도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운전사가 문제가 생겨 정씨의 부탁으로 급하게 운전대를 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씨가 박 대통령 당선 후 최씨



정동춘 전횡 폭로

K스포츠팀단 노승일 부장, 박현영 과장 등 직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춘 이사장의 전횡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이사장이 경력과 이력을 알 수 없는 두 명을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 직원 해고를 선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 지시로 청와대까지 들어가 각종 수리 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 차를 몰고 보안검색

대를 거쳐 관저로 갔고,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간 적도 있다”며 “최순실 원장이 대통령 침실 손질을 할 게 있으니 가보

라고 해 가 봤고, 대통령 가구 등의 문제로 손바달라고 해 전등을 교체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반기문, 실체와 포장 차이 너무 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그분 실제적 진실이 (담긴) 내용물과 포장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낮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간담회에 참석, “반 전 총장은 지금 과장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은 새누리당이 붕괴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한 보수진영의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치지도자로 반기문을 정말 확인하느냐, 지지하는 것이 정말 진심인가, 다음 번 지도자 뽑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며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의 지도자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최인정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임의조정 개선을”

“학부모 원하는 사업에 사용돼야”... “과도한 추경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위협받고 있어”

최인정 도의원은 과거 육성희비라 불리던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임의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희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및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과 운영 및 사용에 대해 심의하고 학교회계에 편성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당 연간 약 22만원 내외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걷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의 수입으로 보고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학교기부 운영비를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배분 방식이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빼앗

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사용목적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면서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50%만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예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최인정 의원은 추경이 빈번하게 이뤄져 학교 재정운영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년 동안 5회 이상 추경 편성 학교가 366개교로 이중 6회 추경 95개교, 7회 추경이 13개, 심

지어 9회와 10회의 추경을 실시한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빈번한 추경 원인 중 하나로 도교육청이 회계연도 중간 중간 목적사업비를 수시로 내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한 학교당 목적사업비 수는 37개였고 이 중 100만원 미만 사업이 10개, 가장 작은 목적사업비는 2만5,000원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인정 의원은 “빈번한 추경편성은 각 학교가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철저히 살펴야 하고 예산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목적사업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인재용 기자

김종철 의원, 도의회 행자위장 선출

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국민의당 김종철 의원이 선출됐다.



김종철 신임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단독 출마해 총 32표 중에 23표를 얻어 무난하게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호영 의원이 애초 행자위원장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날 오전 의회에서 행자위원장직의 국민의당 양보안을 주장해 투표 과정을 거쳐 정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김종철 신임 위원장은 “ 동료 의원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소수당인 새누리당이나 민중연합당 소속의 의원들과도 소통·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조배숙 의원, 보증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은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의 지속적, 반복적인 통지로 보증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은 발의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 체결 때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을 보증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통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증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인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 보증인의 권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김광영, 김광수, 김삼화, 김중희, 김중로, 오세정,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이도영 도의원, 금연환경 조례 개정안 발의

이도영 도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금연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했고, 금연정책 등을 공고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지정방법,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규정하는 등 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로 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